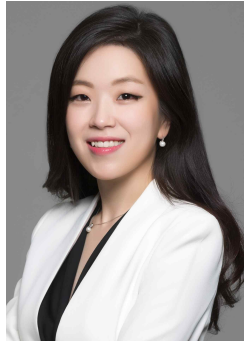


남부고시 나래국어 이유진 교수 2017 서울시 7급 국어 해설

現) 남부고시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KG팩스원 공무원 국어 전임 교수
前) 메가스터디, 이투스청솔, 강남종로
前) 동대부속고, 홍익대학교, 응지세무대

집필) 이유진 나래국어 알기쉬운문법,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우월한독해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저절로 어휘한자, 박문각
이유진 나래국어 독해알고리즘, 헤르메스
이유진 문법의 단권화, 고시동네
이유진 나래국어 기출 300제 박문각
메가북스 EBS 분석노트
디딤돌 국어의 모든 것(단권화) 시리즈
EBS 변형 시리즈 (비문학)

검토) EBS 수능특강 사전 검토, 자이스토리 검토
기타) 법률저널 독해방법론, 학습심리 칼럼 연재
현재 '국문학과 국사의 입맞춤' 연재 중



2017 서울시 7급

문 1. <보기>의 문장을 바탕으로 국어의 형태소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숙제를 주신다.

- ① '선생님께서'의 '께서', '우리들에게'의 '들', '주신다'의 '주'는 모두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 ② '선생님께서'의 '께서', '숙제를'의 '를', '주신다'의 '다'는 모두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 ③ '선생님께서'의 '님', '숙제를'의 '숙제', '주신다'의 '주'는 모두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 ④ '선생님께서'의 '선생', '우리들에게'의 '우리', '숙제를'의 '숙제'는 모두 자립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 정답: ③ - 이론 문법 - 형태론 - 형태소

'숙제를'의 '숙제'는 명사이므로 실질 형태소(어휘 형태소)이다.
'주신다'('어간 주' + 높임 선어말 어미 '-시-' +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 + 종결 어미 '-다')의 '주'는 어간으로, 실질 형태소(어휘 형태소)이다. 하지만 '선생님께서'의 '님'은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형식 형태소(문법 형태소)이다.

선생	-님	께서	우리	-들	에게
명사	접사	조사	대명사	접사	조사
자립	의존	의존	자립	의존	의존
실질	형식	형식	실질	형식	형식

숙제	를	주-	-시-	-ㄴ-	-다
명사	조사	어간	어미	어미	어미
자립	의존	의존	의존	의존	의존
실질	형식	실질	형식	형식	형식

참고) 형태소의 종류 (나래국어 알기 쉬운 문법, 문법의 단권화)

자립성	자립 형태소	혼자 쓰이는 형태소 (체언, 감탄사, 부사, 관형사)
유무	의존 형태소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 (조사, 접사, 어간, 어미)
의미의	실질(=어휘) 형태소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 (자립 형태소 + 어간)
허실	형식(=문법) 형태소	문법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형태소 (조사, 접사, 어미)

★ 오답 해설:

- ① '께서'는 주체 높임에 쓰이는 주격 조사이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들'은 '복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동사 '주다'의 어간 '주-'는 실질적 의미를 갖지만 어미와 쓰여야 하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 ② '께서'는 주격 조사, '를'은 목적격 조사, '-다'는 종결 어미이다. 조사와 어미는 모두 형식 형태소(문법 형태소)에 해당한다.
- ④ '선생'과 '숙제'는 명사, '우리'는 대명사이다. 명사와 대명사 등 체언은 다른 말에 기대지 않고 혼자 쓰일 수 있으므로 자립 형태소에 해당한다.

2017 서울시 7급

문 2. 다음 중 상대 높임법의 등급이 다른 하나는?

- ① 여보게, 어디 가는가?
- ② 김 군, 벌써 봄이 왔다네.
- ③ 오후에 나와 같이 산책하세.
- ④ 어느덧 뱃꽃이 다 지는구려.

★ 정답: ④ - 이론 문법 - 높임법과 언어 예절 - 상대 높임법

하오할 자리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이는 감탄형의 '-는구려'는 격식체 중 하오체에 해당한다.

참고) 상대 높임법의 종류 (나래국어 알기 쉬운 문법)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격식체	합쇼체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오체	하오	하오?	하(시)오 하구려	합시다 하는구려
	하계체	하네, 합세	하는가? 하나?	하계	하세
	해라체	한다	하나? 하냐?	해라 하거라	하자
비격식체	해요체	해요, 하지요	해요? 하지요?	해요 하지요	해요, 하지요
	해체 (반말)	해, 하지	해? 하지?	해, 하지	해, 하지, 하는군, 하는구면

★ 오답 해설:

- ① 「1」 현재의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2」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이는 의문형의 '-는가'는 격식체 중 하계체에 해당한다.
- ②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객관화하여 청자에게 일러 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이는 평서형의 '-다네'는 격식체 중 하계체에 해당한다.
- ③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이는 청유형의 '-세'는 격식체 중 하계체에 해당한다.

2017 서울시 7급

문 3. "이렇게 된 터에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다."의 '터'와 같은 문맥적 의미로 쓰였다고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 ① 첫 출근 날이라 힘들었을 터이니 어서 쉬어.
- ②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터에 남 걱정을 한다.
- ③ 이제야 후회한다고 해도 너무 늦은 터였다.
- ④ 이틀을 굶은 터에 찬밥 더운밥 가릴 겨를이 없다.

★ 정답: ① - 어휘 - 문맥적 의미

“이렇게 된 터에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다.”의 ‘터’는 어미 ‘-은’, ‘-는’, ‘-던’ 뒤에 쓰여 ‘처지’나 ‘형편’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①의 ‘터’는 어미 ‘-을’ 뒤에 쓰여 ‘예정’이나 ‘추측’, ‘의지’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 오답 해설:

②, ③, ④는 어미 ‘-은’, ‘-는’, ‘-던’ 뒤에 쓰여 ‘처지’나 ‘형편’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참고)

터² 의존명사

1. (어미 ‘-을’ 뒤에 쓰여) ‘예정’²이나 ‘추측’, ‘의지’⁶의 뜻을 나타내는 말.

내일 갈 터이니 그리 알아라.

시장할 터인데 어서 들어라.

나는 내일 꼭 극장에 갈 터이다.

2. (어미 ‘-은’, ‘-는’, ‘-던’ 뒤에 쓰여) ‘처지’나 ‘형편’의 뜻을 나타내는 말.

사납을 굶은 터에 찬밥 더운밥 가리겠느냐?

그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터에 남 걱정을 한다.

그는 겨우 역에 도착했지만 기차는 이미 떠나고 없는 터였다.

2017 서울시 7급

문 4. 다음 소설에서 사용된 문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향집에 돌아와서 농사를 한번 지어 보는데, 빼에 붙은 농사일이 서툰 사람 먼저 알고 사흘거리 잔상치요 닻새마다 몸살이라, 지게 지면 뒤통뒤통 지게목발따로 놓고, 삼질이며 팽이질에 도리깨질 쟁기질이 어느 하나 고분고분 손에 붙는 일이 없다. 힘 쓰기는 더 쓰는데 쓰는 힘 헛돌아서, 연장도구 부서먹고 논밭 두렁 무너지고, 제 몸뚱이 다치기에 넘 몸뚱이 겹주기라... 뻘뻘지게 일한다고 뻘뻘진 값 다 받을까. 하루 저녁 비바람에 일년 농사 다 망친다.

- 서정인, 「달궁」

- ① 4·4조의 율격은 판소리에서 고도로 구사되는 것으로, 위의 소설은 판소리 문체를 현대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② 3음보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민요적인 느낌을 주며 향토적인 정서를 환기한다.
- ③ 판소리의 사설과 닮아 있으며 전통적인 정서를 환기시킨다.
- ④ 사투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민중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정답: ② - 독해(문학) - 현대 산문의 표현상 특징

제시된 소설은 판소리 문체를 현대적으로 수용하여 주로 4·4조의 음수율과 4음보의 가락을 활용하였다. 고향집에 와서, 농사를 짓는 어려움을 사투리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고향과 농사와 관련된 용어에서 전통적이고 향토적인 정서가 환기되며 사투리에서 민중적 성격이 드러난다.

[작품해설] <달궁>, 서정인

갈 래 ▶ 장편 소설, 연작 소설

배 경 ▶ 시간-현대(1960년대~1970년대), 공간-서울과 시골(전라북도)

시 점 ▶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

제 재 ▶ 한 여인의 죽음과 여러 인간 군상의 삶의 모습

특 징 ▶ ① 시점의 자유로운 이동, ② 사실주의적 경향

③ 간접제와 만연체의 혼합, ④ 지문과 대화의 무시

주 제 ▶ ① 여러 인물들의 삶의 궤적을 통한 인생의 참모습

② 사회 현실의 격랑 속에서 겪은 개인적 삶의 존재 의식

2017 서울시 7급

문 5.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합리성이 인간의 본래적인 특성이기는 하지만, 더 나아가 이러한 합리성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관점을 지닌 무수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어울려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공동체의 합리적인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단순히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타당한 논리를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한 주장에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존중해 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근거를 제시하고 진정으로 사려 깊게 논증한다면 상대방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것이고, 이로써 당신의 생각을 인정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의 논증이 일관되고 견고해 보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생각이 깊은 올바른 사람이라고 기억할 것이다.

- ① 합리적인 공동체의 미래
- ② 합리적 사고의 의미
- ③ 인간의 사회적 특성
- ④ 합리적 논증의 필요성

★ 정답: ④ - 독해(비문학) - 주제

첫 문장에서 ‘합리성’보다 ‘합리성을 표현’하는 것이 더 강조되었다. 단순히 합리적 사고를 넘어 타당한 논리를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을 펼친 뒤, 마지막으로 합리적 논증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다고 끝을 맺었다. 합리성을 표현하는 것, 즉 합리적으로 사안을 논증해내는 능력의 필요성을 서술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합리적인 공동체’라는 표현이 글에 있으나 중심 내용이 아니다.
- ② ‘합리적인 사고’가 무슨 뜻인지 설명하는 글이 아니다.
- ③ 이 글의 전체일 수는 있으나 주제는 아니다.

2017 서울시 7급

문 6. 다음 중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 ① 손목, 눈물, 할미꽃, 어깨동무, 군세다, 날뛰다
- ② 잠보, 점쟁이, 일꾼, 텃개, 넓이, 조용히
- ③ 지붕, 군것질, 선생님, 먹히다, 거뭇다, 고프다
- ④ 맨손, 군소리, 꽃사랑, 시누이, 빗나가다, 새파랗다

★ 정답: ① - 이문 문법 - 형태론 - 단어의 형성

손목: 명사 ‘손’ + 명사 ‘목’(척추동물들의 머리와 몸통을 잇는 갈록한 부분)이라는 중심 의미의 확장) → 통사적 합성어이자 종속 합성어

눈물: 명사 ‘눈[眼/雪]’ + 명사 ‘물’ → 통사적 합성어이자 종속 합성어(‘눈알 바깥면의 위에 있는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 또는 ‘눈이 녹아서 된 물’)

할미꽃: 명사 ‘할미’ + 명사 ‘꽃’ → 통사적 합성어이자 종속 합성어

어깨동무: 명사 ‘어깨’ + 명사 ‘동무’ → 통사적 합성어이자 융합 합성어(‘1’ 상대방의 어깨에 서로 팔을 얹어 끼고 나란히 섰. 또는 그렇게 하고 노는 아이들의 놀이 ‘2’ 나이나 키가 비슷한 동무)

군세다: 연결 어미 없이 ‘군다’와 ‘세다’가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날뛰다: 연결 어미 없이 ‘날다’와 ‘뛰다’가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오답 해설:

② 잠보: 명사 ‘잠’ + 접미사 ‘-보’(그것을 특성으로 지닌 사람) → 파생어

점쟁이: 명사 ‘점’ + 접미사 ‘-쟁이’(그것과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파생어

일꾼: 명사 '일' + 접미사 '-꾼'(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 → 파생어
덮개: 동사 '덮다'의 어근 '덮-' + 명사화 접미사 '-개'(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 → 파생어
넓이: 형용사 '넓다'의 어근 '넓-' + 명사화 접미사 '-이' → 파생어
조용하: 형용사 '조용하다'의 어근 '조용-' + 부사화 접미사 '-히' → 파생어
③ 지붕: 학교 문법 기준으로는 '집+옹(회귀 접미사 '-옹')의 결합인 파생어
이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단일어로 등재하고 있다.
군것질: 접두사 '군-'(쓸데없는) + 명사 '것' + 접미사 '-질'(비하) → 파생어
선생님: 명사 '선생' + 접미사 '-님'(높임) → 파생어
먹히다: 동사 '먹다' + 접미사 '-히-'(피동) → 파생어
거명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거명다'를 단일어로 등재하고 있다. 그러나
'-영'을 접사로 인정한다면 파생어로 볼 수 있다.
고프다: 어원적으로 '양을 적게 먹거나 굶다'는 뜻을 가진 동사 '굶다'의
'굶-'에 형용사화 접미사 '-브-'가 결합된 '골프다'에서 받침 'ㄹ'이 탈락한
형태가 굳어진 파생어이다.
④ 맨손: 접두사 '맨-'(다른 것이 없는) + 명사 '손' → 파생어
군소리: 접두사 '군-'(쓸데없는) + 명사 '소리' → 파생어
꽃사랑: 접두사 '꽃-'(미숙한, 길지 않은) + 명사 '사랑' → 파생어
시누이: 접두사 '시-'(남편의) + 명사 '누이' → 파생어
빚나가다: 접두사 '빚-'(잘못) + 동사 '나가다' → 파생어
새파랗다: 접두사 '새-'(매우 짙고 선명하게) + 형용사 '파랗다' → 파생어

2017 서울시 7급
문 7. 밑줄 친 부분이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국어에는 동일한 모음이 연속될 때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① 늦었으니 어서 자.
② 여기 잠깐만 서서 기다려.
③ 조금만 천천히 가자.
④ 일단 가 보면 알 수 있겠지.

★ 정답: ③ - 이론 문법 - 음운론 - 음운의 변동

<보기>는 음운의 변동에서 모음 탈락 중 동음 탈락에 대한 설명이다. '가자'는 동사 '가다'의 어간 '가-'에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자'가 연속되는 경우이므로 모음의 동음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 오답 해설:

① 동사 '자다'의 어간 '자-'에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물음·명령·청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아'가 연속된 경우로, 어간 '자-'의 모음 'ㅏ'와 종결 어미 '-아'의 모음 'ㅏ'가 동일하여 하나가 탈락하였다.
② 동사 '서다'의 어간 '서-'에 연결 어미 '-어서'가 연속되는 경우로, 어간 '서-'의 모음 'ㅓ'와 연결 어미 '-어서'의 'ㅓ'가 동일하여 하나가 탈락하였다.
④ 동사 '가다'의 어간 '가-'에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하는 데 쓰는 연결 어미 '-아'가 연속된 경우로, 어간 '가-'의 모음 'ㅏ'와 연결 어미 '-아'의 모음 'ㅏ'가 동일하여 하나가 탈락하였다.

2017 서울시 7급
문 8. 밑줄 친 말이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은?

① 점심 설겂이는 내가 할게.
② 일이 열키고설켜서 풀기가 어렵다.
③ 감히 언다가 대고 반말이야?
④ 모두 소매를 걸어부치고 달려들었다.

★ 정답: ③ -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 표준어 규정

'어디에다가'가 줄어든 말인 '언다가'는 옳은 표기이다. '어디에다가'는 따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준말인 '언다가'는 사전 등재되어 있다.

★ 오답 해설:

① '설거지'가 옳은 표기이다. 사어(死語)가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쓰도록 하는 표준어 규정 제20항에 따르면, '설겂-'은 표준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겂-'을 엄두에 두고 '설겂이'로 적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열키고설켜다'가 옳은 표기이다. '열키다'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설키다(또는 설키다)'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용언 어간 뒤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21항에 따라 '열키고설키다'로 적는다.
④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6항에 따라 '소매나 바짓가랑이 따위를 말아 올리다'란 의미의 동사는 '걸어부치다'가 아닌 '걸어붙이다'로 적는다.

2017 서울시 7급
문 9. 다음은 어느 작품의 일부분이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슬프다!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거꾸로 되고 충신과 역적이 바뀌었도다. 이같이 천리에 어긋나고 덕의가 없어서 더럽고, 어둡고, 어리석고, 악독하여 금수(禽獸)만도 못한 이 세상을 장차 어찌하면 좋을까? 나도 또한 인간의 한 사람이라, 우리 인류 사회가 이같이 악하게 됨을 근심하여 매양 성현의 글을 읽어 성현의 마음을 본받으려 하더니, 마침 서창에 곤히 든 잠이 춘풍에 이 익한 바 되매 유흥을 금치 못하여 죽장망혜(竹杖芒鞋)로 녹수를 따르고 청산을 찾아서 한 곳에 다다르니, 사면에 기화요초는 우거졌고 시냇물 소리는 종종하며 인적이 고요한데, 흰 구름 푸른 수풀 사이에 현판(懸板) 하나가 달렸거늘, 자세히 보니 다섯 글자를 크게 썼으되 '금수회의소'라 하고 그 옆에 문제를 걸었는데, '인류를 논박할 일'이라 하였고, 또 광고를 붙였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무슨 물건이든지 의견이 있거든 의견을 말하고 방청을 하려거든 방청하되 각기 자유로 하라' 하였던 데, 그 곳에 모인 물건은 길짐승·날짐승·버러지·물고기·풀·나무·돌 등물이 다 모였더라.

① 연설을 서사의 방법으로 채용하여 계몽적 의도를 효과적으로 숨기고 있다.
② 해방 직후에 나타난 정치소설의 한 변형으로서, 우화적 풍자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③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인 회개를 강조하기보다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④ 표면적으로 동물들이 인류의 부패와 타락을 논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이 시기 사회의 비판과 풍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정답: ④ - 독해(문학) - 지식국어 - 현대 산문에 대한 배경지식

'금수회의소', '인류를 논박할 일', '하늘과 땅 사이에'각기 자유로 하라'는 표현을 통해 안국선의 신소설 「금수회의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화적 기법을 통해 동물들이 인간을 비판하는 내용인 듯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인공 '나'를 통해 개화기의 사회를 비판 풍자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오답 해설:

- ① 계몽적 의도를 숨기고 앎고 적실적으로 드러낸다.
- ② 해방직후 작품이 아니라 개화기 신소설이다.
- ③ 인간을 비판했으나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작품해설] <금수회의록>, 안국선

성 격 ▶ 우화적, 풍자적, 정치적, 연설 문제

시 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구 성 ▶ 액자 구성(8가지의 동물들이 차례로 인간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회의의 인
간인 '나'가 관찰하고 기록하는 형식)

서언: '나'가 꿈속에 '금수회의소'에 도착. 사회자의 선언

제1석(第一席): 까마귀-반포지효(反哺之孝), 불효 비판

제2석(第二席): 여우-호가호위(狐假虎威), 외세 의존 비판

제3석(第三席): 개구리-경와어해(井蛙語海), 좁은 소견 비판

제4석(第四席): 벌-구밀복검(口蜜腹劍), 표리부동(가식) 비판

제5석(第五席): 게-무장공자(無腸公子), 지조와 절개 강조

제6석(第六席): 파리-영영지극(營營之極), 이익 분쟁 비판

제7석(第七席): 호랑이-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포악함 비판

제8석(第八席): 원앙-쌍가쌍래(雙去雙來), 풍기문란 비판

폐회: '나'가 동물보다 못한 인간 세상의 타락을 비판

주 제 ▶ 인간 세계의 모순과 비리와 타락상 풍자, 개화기의 혼란한 세태를 비판

2017 서울시 7급

문 10. 다음 시가의 양식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심이 늦 곳터야 보도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머호도 머힐시고
엇그제 비즌 술이 어도록 니건느니
잡거니 밀거니 슬긱장 거후로니
먹음의 먹친 시름 저그나 흐리느다
거문고 시웁 언저 풍입송 이아고야
손인동 주인인동 다 니저 브려세라

- ① 조선 왕조의 창업과 번영을 송축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 ② 10구체의 경우 당대의 귀족, 지배층의 정신 세계를 노래하였다.
- ③ 조선 후기의 시정(市井)에서 직업적, 반직업적 소리꾼에 의해 창작된 노래이다.
- ④ 시조와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 정답: ④ 독해(문학) - 고전 운문

정철의 가사인 「성산별곡」의 끝부분이다. 시조가 길어진 교술 갈래인 가사는 조선 시대에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강호한정 등의 짧은 소회는 시조를 통해, 기행을 통한 건문이나 정서 및 줄거리를 가진 사연을 감정적으로 드러낼 때에는 가사를 활용하였다.

★ 오답 해설:

- ① 약장 ② 향가 ③ 잡가

2017 서울시 7급

문 11. <보기>의 문장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경어법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太子 | 道理 일우샤 즈개 慈悲호라 하시느니
《석보상절》
- ㉡ 그 後로 人間엿 차바는 때 몬 좌시며
《월인석보》
- ㉢ 섬 안해 자쉴 제 한비 사으리로되 뷔어사 즈므니이다
《용비어천가》
- ㉣ 곳과 果實와 플와 나모와를 머그리도 이시며
《석보상절》

- ㉠ ㉠의 '즈개'는 太子를 받는 높임의 대명사로 쓰였다.
- ㉡ ㉡의 '좌시며'는 '먹다'의 높임말로 쓰인 것이다.
- ㉢ ㉢의 '자쉴'은 '자다'의 높임말로 쓰인 것이다.
- ㉣ ㉣의 '이시며'는 앞에 오는 '머그리'를 높이는 말로 쓰였다.

★ 정답: ④ 이론 문법 - 고전 문법 - 중세 국어

'이시며'는 '있으며'의 뜻으로 '이시다'가 기본형으로 높임 표현이 아니다.
머그리도 이시며: 먹+음+이+도 있(다)+이며

★ 오답 해설:

- ㉠ ㉠의 '즈개'는 앞에 언급된 '太子'를 다시 언급하느라 쓰인 재귀대명사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높임의 재귀대명사로 '당신'을 쓰지만 당시에는 '즈개'를 썼다.
- ㉡ ㉡의 '좌시며'는 '잡수시며'의 뜻으로, '먹다'의 높임 의미로 쓰인 것이다.
- ㉢ ㉢의 '자쉴'은 '자다'에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넣은 것이다. 현대에는 '주무시다'와 대응된다.

2017 서울시 7급

문 12. 다음 시들을 발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 ㉠ 여승은 함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쉴쉴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 ㉡ 눈은 살아 있다. /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 ㉣ 껌데기는 가라. /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껌데기는 가라.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정답: ③ - 지식국어 - 문학시대사

㉢ <산유화>, 김소월: 1924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김소월은 민요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민족주의 성향의 시를 쓴 1920년대의 대표적 작가이다.

㉠ <여승>, 백석: 1936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백석은 이용악과 함께 1930년대 유과 외 시인으로 분류되는 작가이다.

㉡ <눈>, 김수영: 1956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김수영은 전통적 순수시의 시적 흐름에 반발하여, 1930년대의 모더니즘을 계승한 1950년대의 후반기 동인 작가 중 한 명이다. 또한 4.19 혁명(1960) 이후 현실 참여시를 쓴 대표적인 작가이다.

㉣ <껌데기는 가라>, 신동엽: 1967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신동엽은 현실 참여시를 쓰던 1960년대 참여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시어 중 '사월'이 4.19혁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1960년대 작품임을 추론할 수 있다.

2017 서울시 7급

문 13. 다음 중 한자어의 의미관계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 ① 發送 - 郵送
- ② 供給 - 需要
- ③ 脫退 - 加入
- ④ 惡化 - 好轉

★ 정답: ① - 어휘(한자) - 의미관계

'發送'과 '郵送'은 유의 관계이다.

發送(필 발, 보낼 송): 물건, 편지, 서류 따위를 우편이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보냄.

郵送(우편 우, 보낼 송): 우편으로 보냄.

★ 오답 해설:

나머지는 모두 반의 관계이다.

- ② 供給(이바지할 공, 줄 급):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제공함.
需要(쓰일 수, 요긴할 요):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
③ 脫退(벗을 탈, 물러날 퇴): 관계하고 있던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관계를 끊고 물러남.
加入(더할 가, 들 입): 「1」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 들어감. 「2」 새로 더 집어넣음.
④ 惡化(악할 악, 될 화): 「1」 일의 형세가 나쁜 쪽으로 바뀜. 「2」 병의 증세가 나빠짐.
好轉(좋은 호, 구를 전): 「1」 일의 형세가 좋은 쪽으로 바뀜. 「2」 병의 증세가 나아짐.

2017 서울시 7급

문 14. 다음 중 로마자 표기법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도: Dokdo ② 불국사: Bulguksa
③ 극락전: Geukrakjeon ④ 축석루: Chokseongnu

★ 정답: ③ - 어문규정 - 로마자 표기법

제시된 선지는 모두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건축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는 로마자 표기법 제6항의 용례이다.

‘극락전’의 발음은 [궁낙쩨]인데, 이때 비음화(상호 동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로마자 표기에 비음화는 반영하나 된소리되기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Geungmakjeon’이라 적는다.

★ 오답 해설:

- ① ‘독도’의 ‘도’는 행정 구역 단위가 아닌 자연 지물명인 ‘섬(島)’으로서의 ‘도’이므로 붙임표(-) 없이 ‘Dokdo’라 적는다.
② ‘불국사’는 전체를 한 단어로 보아 ‘Bulguksa’라 적는다.
④ ‘축석루’의 발음은 [축쎈루]인데, 이때 된소리되기와 비음화(상호 동화)가 일어난다. 로마자 표기에 비음화는 반영하나 된소리되기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Chokseongnu’라 적는다.

2017 서울시 7급

문 15. 다음 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성향 하나는 시장과 시장 친화적 사고가 시장과는 거리가 먼 기준의 지배를 받던 전통적 삶의 영역까지 파고든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국가가 병역이나 죄수 심문을 민간 도급업체나 별도 인력을 고용해 맡길 때, 부모가 개발도상국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임신과 출산을 의뢰할 때, 콩팥을 공개시장에서 사고팔 때 어떤 도덕적 문제들이 생기는지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런 예는 많다. 학업 성취도가 부진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표준화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경우 상금으로 포상해야 하는가?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갔다면 교사가 보너스를 받아야 하는가? 국가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재소자 수용을 맡겨야 하는가?

이는 공리의 합의만을 묻는 게 아니다. 그것은 군 복무, 출산, 가르침과 배움, 범죄자 처벌 등을 받아들이는 일 같은 중요한 사회적 행위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다.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시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은 비시장 규범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 ① 시장 친화적 사고는 비도덕적이다.
② 사회적 행위는 올바른 규범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가치에 맡기는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③ 전통적인 삶의 영역으로 시장 친화적 사고가 침투하는 이유는 국가가 공리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④ 군 복무나 출산, 가르침과 배움 등은 시장과 시장 친화적 원리가 적용되기에 적합한 것들이다.

★ 정답: ② - 독해(비문학) - 주제

이 글은 ‘시장 친화적 사고’가 몇몇 부적절한 전통적 삶의 영역에까지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출산, 장기매매 등에 적용된 시장 원리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둘째 문단에서는 사회적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따라서 선지 ②가 이런 회의적 고민 속에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 오답 해설:

- ① 시장 친화적 사고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적용되어야 할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③ 시장 친화적 사고가 침투하는 원인으로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다. 민간의 병역, 죄수 심문 이행 사례 등은 예시에 불과하다.
④ 지문에서는 ‘군 복무, 출산, 가르침과 배움, 범죄자 처벌 등’을 시장 친화적 원리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대상으로 지목하였으므로 선지는 지문의 관점과 충돌한다.

2017 서울시 7급

문 16. 다음 중 17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근대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문일치가 이루어졌다.
② 시상법 체계에서 과거 시제가 확립되었다.
③ 유성마찰음계열인 ‘ㄴ, ㄷ’이 실제로 존재했다.
④ 의문문은 판정 의문과 설명 의문이 구별되기 시작했다.

★ 정답: ② - 이론 문법 - 고전 문법 - 근대 국어

② 근대에 시상법(시제와 상에 대한 규범)에서 과거 시제 ‘-았/-었-’이 확립되었다.

★ 오답 해설:

- ① 1910년대 이후 근대소설의 등장과 함께 언문일치에 근접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언문일치의 확립은 이광수와 김동진 등에 이르러서이다. 1920~30년대에 들어서면서 언문일치가 완성된다.
③ ㄴ(순경음비음)은 15세기에, ㄷ(반치음)은 16세기에 소멸되었다.
④ 15세기에도 판정, 설명, 의문문의 구분이 있었다. 판정 의문문은 조사나 어미의 모음이 ‘아, 어’인 의문 보조사가 붙어 이루어졌으며 설명 의문문은 조사나 어미의 모음이 ‘오’인 의문 보조사가 붙어 이루어진다.

2017 서울시 7급

문 17. 다음 밑줄 친 시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꽃이 지기로소니 / 바람을 탓하라.

주렴 밖에 ㉠ 성긴 별이 / 하나 둘 스러지고

㉡ 귀촉도 울음 뒤에 / 머먼 산이 다가 서다.

춧불을 꺼야 하리 /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단이가 / ㉢ 우런 불어라.

물혀서 사는 이의 /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 ㉣ 저허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 울고 싶어라.

- 조지훈, 「낙화」(1946)

- ① ㉠ 성긴: 물건 사이가 떠서 빈 공간이 많음을 뜻한다.
② ㉡ 귀촉도: 소쩍새, 두견새를 뜻한다.
③ ㉢ 우런: 갑자기, 불쑥 나타남을 뜻한다.
④ ㉣ 저허하노니: 두려워하노니

★ 정답: ③ - 독해(문학) - 현대 운문

‘우련’은 ‘희미하게’의 의미이다.

[작품해설] <낙화>, 조지훈

갈 래 ▶ 자유시, 서정시

성 격 ▶ 낭만적, 묘사적, 애상적, 관조적

특 징 ▶ ① 떨어지는 꽃을 보고 아름다운 존재의 소멸의 비애를 노래

② 2행 1언의 균형미

③ 묘사적 심상과 담담한 어조

④ 절제된 어법과 진동적 율격의 적절한 배합 속에서 삶의 우수를 표현

주 제 ▶ 꽃지는 슬픔과 삶의 무상감과 비애

2017 서울시 7급

문 18. 다음 중 뜻이 비슷한 사자성어끼리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 ① 同病相憐- 兩寡分悲 ② 口如懸河- 口尚乳臭
③ 衣錦夜行- 夜行被繡 ④ 望雲之情- 白雲孤飛

★ 정답: ② - 어휘 - 한자성어

口如懸河(구여현하): 입이 급히 흐르는 물과 같다는 뜻으로, 거침없이 말을 잘하는 것을 이르는 말.

口尚乳臭(구상유취): 입에서 아직 젖내가 난다는 뜻으로, 말이나 행동이 유치함을 이르는 말.

★ 오답 해설:

① 同病相憐(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兩寡分悲(양과분비): 두 과부가 슬픔을 서로 나눈다는 뜻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함을 이르는 말.

③ 衣錦夜行(의금야행): 비단옷을 입고 밤에 다닌다는 뜻으로, 모처럼 성공하였으나 남에게 알려지지 않음을 이르는 말.

夜行被繡(야행피수): 수놓은 좋은 옷을 입고 밤길을 간다는 뜻으로, 공명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 아무 보람도 없음을 이르는 말.

④ 望雲之情(망운지정):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ㄴ望雲之懷(망운지회)

白雲孤飛(백운고비): ① 타향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를 생각함. ② 멀리 떠난 자식이 아버지를 사모하여 그리는 정

2017 서울시 7급

문 19. 다음 중 雲從龍風從虎라는 말과 뜻이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은?

- ①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② 말 갈 데 소 갈 데 다녔다
③ 바람 부는 대로 돛을 단다 ④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

★ 정답: ① - 어휘 - 관용표현 (한자 + 속담)

雲從龍風從虎(운종룡풍종호): 용 가는 데 구름 가고 범 가는 데 바람 간다는 뜻으로, 뜻과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서로 뜻을 이르는 말.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바늘이 가는 데 실이 항상 뒤따른다는 뜻으로, 사람의 긴밀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ㄴ구름 갈 제 비가 간다·바늘 가는 데 실 가고 바람 가는 데 구름 간다·바늘 따라 실 간다·바람 간 데 범 간다·봉 가는 데 황 간다·실 가는 데 바늘도 간다.

★ 오답 해설:

② 온갖 곳을 다 다녔다는 말.

③ 바람이 부는 형세에 따라 돛을 단다는 뜻으로, 세상 형편 돌아가는 대로 따르고 있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ㄴ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바람 부는 대로 살다.

④ 일정한 정조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기 마련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17 서울시 7급

문 20. 다음 지문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변증술은 한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다른 사람이 논파하려 드는 게임과 같은 것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토피카』에서 하나의 주장을 공격 또는 방어하는 요령을 가 능한 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는 시도를 했다. 공방의 대상이 되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무엇보다도 논쟁을 하는 두 사람이 같이 설정한 주제가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 말을 한다면 그냥 서로 판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니 논쟁이 성립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상황은 언어적으로는 결국 주어는 같고 술어는 서로 상반되는 두 명제에 의해 반영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점을 엄두에 두고 주어를 술어에 귀속시키는 서술 방식을 유형별로 나누어 공방의 요령을 정리 했다. 그때 그가 유형 구별의 일차적인 표지로 삼은 것은 무엇인지(ti), 어떤지(poion), 얼마인지(poson), 언제(pote), 어디서(pou) 등과 같은 의문사였다. 이런 의문사는 요구되는 적절한 답의 범위를 우선적으로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가령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참새를 가리키며 그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그것이 아주 작다는 답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새가 작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답은 그저 엉뚱한 동문서답일 뿐이다. 반면 종달새라고 답을 했다면 그 답은 틀리기는 해도 동문서답은 아니다. 그럴 경우는 진위를 판가름을 하기 위한 시비를 시작할 수 있지만, 작다는 답은 맞고 틀리고 이전에 답을 하는 쪽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판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듯 의문사는 적절한 답의 범위를 정해주면서 곧 진위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논의 주제에 적절한 서술 범위의 경계를 표시해준다.

- ① 주어를 술어에 귀속시키는 서술 방식을 유형별로 구별하는 일차적인 표지는 의문사이다.
② 공방의 대상이 되는 주장이 성립한다는 것은 언어적으로는 서로 주어가 다른 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반영된다.
③ “나무의 색깔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나무의 종류가 무엇이다”라고 대답한다면 대답의 진위 판단이 가능하다.
④ 의문사는 답의 범위를 정해주지만 논의 주제에 적절한 서술 범위의 경계를 표시하지는 않는다.

★ 정답: ① - 독해(비문학) - 내용 확인 + 일반 추론

주장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변증술에서, 공방의 대상이 되는 주장은 주어가 같고 술어가 다른 경우 성립한다. 같은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는 상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어를 술어가 가리키는 바에 한정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서술 방식을 유형별로 나누었다. 이때 ‘무엇인지(ti)’, ‘어떤지(poion)’ 등의 의문사가 유형 구별의 일차적인 표지가 된다고 지문에서 밝히고 있다.

★ 오답 해설:

② 둘째, 셋째 문장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③ 색깔에 한정하여 질문을 하였기에 종류에 관한 답은 범주가 다른 답으로써 동문서답이다. 진위를 판가름하기 위한 시비조차 시작할 수 없다.

④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의문사가 논의 주제에 적절한 서술 범위의 경계를 표시해준다고 한다.